

今年度 對內外 經濟與件과 貿易政策方向

權 坪 五*

I. 작년에는 4년만의 무역수지흑자 달성이 가장 큰 성과

작년도 우리 경제의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점을 꼽으라면 누구든지 '89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달성한 무역수지흑자를 들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무역이 세계무대로 정식 등장한 '60년대 이래 약 30년간 계속된 무역적자로 인하여 무역흑자가 곧 선진국이라는 믿음이 온 국민들의 가슴에 심어져 있었고, 이에 따라 '輸出이 곧 愛國'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우리가 '86년의 이른바 '3低' 여건하에서 무역흑자를 처음으로 달성했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한지 수출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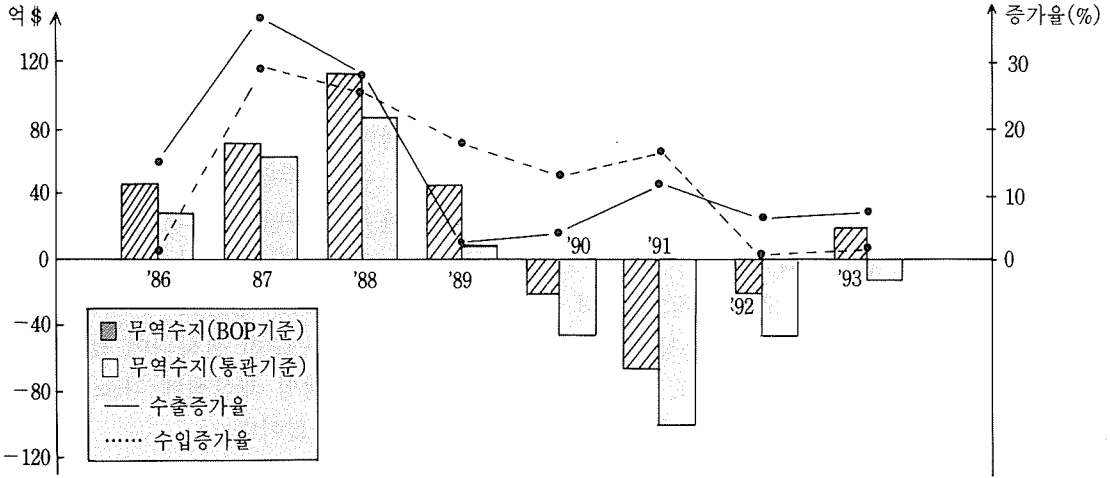
그러나 '86~'88년의 흑자기간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출에 대한 정열이 사라지고 과소비풍조가 사회 각 계층에 만연되어 있던 상황에서 '3低' 여건마저 사라지자 어렵게 쌓아올린 무역흑자의 금자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90년부터는 오히려 눈덩이 불어

나듯 무역적자가 늘어나 '91년에는 통관기준으로 100억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한때 모든 나라들의 동경과 질시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가 '삼폐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나라', '아시아의 4마리 용에서 탈락한 한마리 지렁이'라는 등 어느날 갑자기 조소와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도 곧 무역에 있어서의 불품없는 성과에 기인하였던 것이다.

'91년까지 날로 나빠져가던 무역수지가 '92년에는 수입의 급격한 둔화에 힘입어 적자가 거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다가 급기야 작년에는 수입은 안정세를 계속하고 수출은 견실하게 증가함으로써 '89년 이후 4년만에 흑자를, 그것도 '92년보다 42억달러가 개선된 20억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하여 이제 무역흑자 2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해 우리 무역의 특징을 더듬어 보면 수출이 당초 전망치(835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엔高와 개도국의 개발수요 확대에 힘입어 '92년보다는 상당히 회복된 데다 대만(4.1%), 일본(6.3%) 등 주변 경쟁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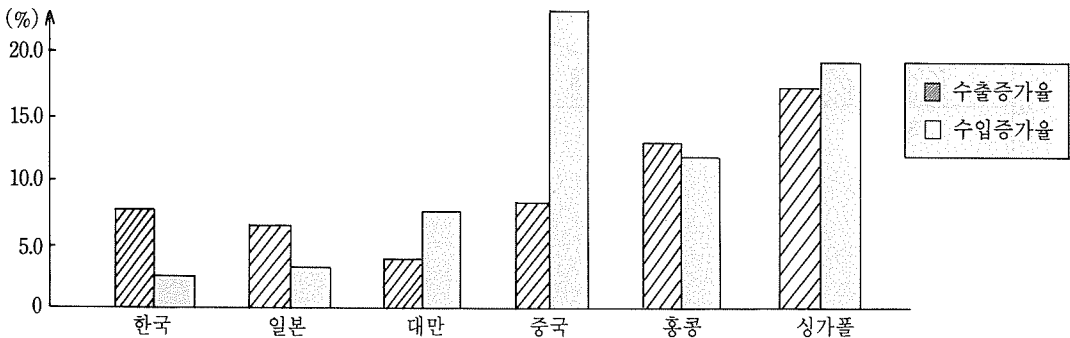
* 商工資源部 輸出振興課 事務官



(그림 1) 수출입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특히, 선진국에 대한 수출감소세가 둔화된 가운데 개도국 등 신시장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크게 진전되고 반도체, 자동차 등 기술집약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출상품구조가 고도화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섬

유제품, 신발, 완구 등 한때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역할을 했던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감소세가 예상보다 심화되고 설비투자도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안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주변 경쟁국과의 '93년 무역성과 비교

II. 금년에는 수출환경은 밝으나 동시에 수입증가요인도 커

올해 우리 무역을 둘러싼 대외환경은 세계경제의 회복,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자유무역 분위기 확산, 국제 원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안정 등이 예상되고 있어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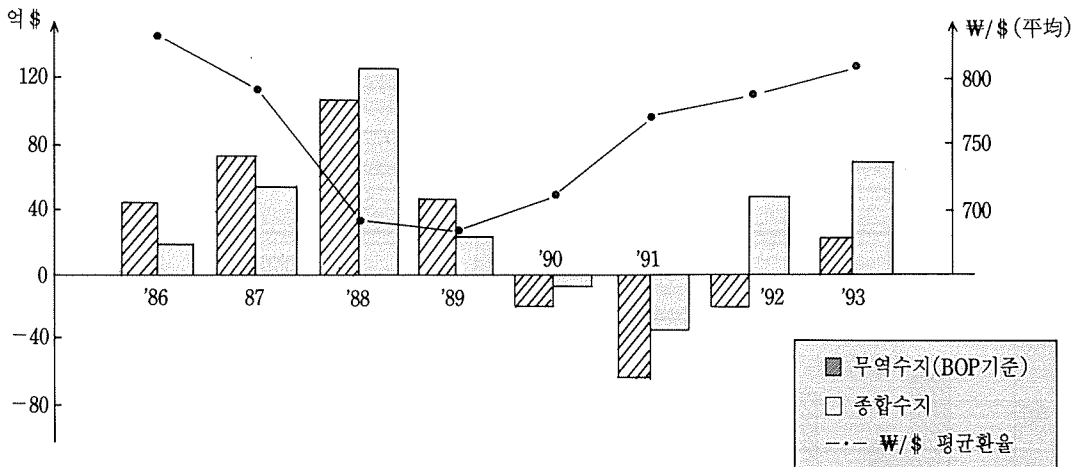
우선 세계경제 성장률은 선진국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작년의 2%대에서 올해에는 3%대로, 이에 따라 교역량 증가율도 작년의 3%대에서 올해에는 5%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을 계기로 자유무역 분위기가 확산됨으로써 우리 수출에 靑信號를 주고 있다.

그러나, 올해 무역환경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임으로써, 1차산품의 수입단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설비투자나 내수소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작년의 5%대에서 올해에는 6~7%대로 높아짐에 따라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올해 수출에 있어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환율이 아닌가 싶다. 원貨의 대미 달러환율은 '93년 3월 현재의 환율결정방식(시장평균환율제)으로 전환된 이후 무역수지적자를 배경으로 꾸준히 절하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수출업계의 채산성에 다소 숨통을 터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년에는 무역수지가 '92년에 비해 40억달러 이상 개선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도 크게 증가('92 : 21억달러→'93 : 56억달러)하여 절하폭이 '90~'92년에 비해 둔화된 2.4%에 그쳤다. 더구나 금년에는 종합수지 흑자규모가 '93년의 65억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10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되고



(그림 3) 무역수지 · 종합수지 및 환율 추이

있어 환율절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독일 등 주요 경쟁국들의 통화가치는 자국의 경기회복 지연 또는 무역수지 흑자규모 축소에 따라 약세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내지는 수출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종합수지 흑자가 100억달러에 달하고 이를 통화와 환율이 50%씩 분담한다고 할 때 원/달러 환율은 1.3% 정도 절상압력을 받으며, 이 경우 수출은 0.4% 감소하고, 수입은 1.0% 증가하여 현재 예상보다 16억달러의 무역수지가 악화된다.

Ⅲ. 올해의 무역정책의 과제

상공자원부에서는 위와같은 대내외 무역여건과 함께 업계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와 수출증대 목표가 의욕적인 점, 그리고 작년 11월초 「신경제 국제화전략」의 일환으로 마련한 수출활성화대책이 수출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수출입이 균형을 이룬 900억달러로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출을 늘리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책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첫째로 수출경쟁력의 향상과 수출분위기의 조성에 관한 것으로서, 올해에는 수입이 과거 2년간의 안정세에서 벗어나 현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설정된 수출목표의 달성이 불가피하며,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경우 자칫 어렵게 실현한 흑자기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경쟁력의 향상노력이 없으면 앞으로 수출이 전실하게 늘어나기가 곤란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대로 환율절상은 수출업계의 채산성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현재보다 더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종합수지 흑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정책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둘째로는 제도·관행의 국제화에 관한 것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가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7월에는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올해에는 수출지원제도, 수출자율규제 및 수입절차 등 제반 무역제도를 국제규범에 맞도록 정비하면서 동시에 교역국의 수출환경개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사전에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의 국제화·세계화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기업이 국제적인 無限競爭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규제완화에 관한 것으로서, 汎政府의인 규제완화정책에 부응하여 수출입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에 관하여는 그것이 수출입절차와 같이 직접 관련된 것은 물론 외환·물류 등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국제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정식으로 발효되면 종전과 같은 직접지원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다 저렴한 비용을 들여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 규제완화의 당위성이 있다. 작년초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출부대비율을 조사한 결과 품목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수출부대비율이 수출액의 4%까지 차지하였는데, 부대비율을 1%만 줄이더라도 기업의 채산성은 1%가 개선될 것이며, 이는 '93년 수출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이 2.0%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IV. 올해의 무역정책은 제도의 국제화와 수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

(1) 새로운 국제무역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무역관련제도를 국제화할 터

올해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세계무역의 자유화 촉진 등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관련제도를 국제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무역관련제도를 정비하는 노력과 함께 다양화·복잡화되는 거래패턴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부합하도록 무역관련제도를 국제화하기 위한 작업추진체계로서 관계부서로 법령제도정비반, 개별법정비반 및 수출지원제도정비반을 구성하여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하반기중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수출지원제도의 개편을 위하여는 협정문의 정확한 해석과 선진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현행 수출지원제도와 규제대상보조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보조비율 등을 정밀검토하고, 금지 또는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하는 지원제도는 협상결과에 부합하면서도 관련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상반기중에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촉진 및 해외투자 등 무역진흥을 위한 현행 지원제도는 크게 금융·외환부문과 세제지원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무역금융이나 수출산업설비자금 등 금융지원제도는 운용방법이나 조건을 다소 변경할 경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반면 수출손실준비금이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같은 세제지원은 상당

수가 금지보조금에 해당하지만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아울러 灰色措置(VER)의 단계적 및 섬유쿼타제도의 개선작업도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각종 개별법상의 수입관련제도를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므로 수량규제적 수입추천제도를 개선하고 양곡류, 사료, 비료 등 일부 품목의 수입자격제한에 대한 국제규범상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수입요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도 명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제도의 보완을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원산지규정을 정밀분석하여 국내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수입선다변화 품목수를 '93년말(258개)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한다는 원칙하에 금년 1월부터 25개 품목을 해제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의 시설제에 대하여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수출입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작년 7월부터 수출자동승인품목으로서 수출신용장방식 수출인 경우 건당 2만달러 이하의 소액인 경우 수출승인을 면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건당 금액제한을 폐지하도록 추진하고 수출추천품목도 대폭 없애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설비 수주계획 신고제를 폐지하되 대외무역법 개정시까지 우선적으로 해양설비·발전설비 등 일부 설비에 대하여 신고를

면제하고 국제입찰참가 승인제도는 1월부터 폐지하였다. 그리고 수입선다변화품목의 경우 동일수출자(제조자)로부터 반복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 등 관련서류 제출을 면제하며, 위탁가공무역시 원자재조달범위를 현지조달 시까지 확대하고 製品還買·3국간 교역을 활용한 복합거래 등 거래형태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무역거래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서류없는 무역절차로 관련업체들의 부대비용을 줄이도록 1월부터 전국 33개 외국환은행의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역전산망과 금융전산망간 상호시스템을 접속하였으며, 올해내에 무역자동화 대상을 해상수출신고·수출추천 및 쿼타업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입절차에 있어서의 규제완화와 함께 시급한 분야가 외환거래 및 외환결제시의 규제로서 최근 업계로부터 기업의 국제화와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제도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경제의 국제화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제도를 대폭 완화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 기본방향으로는 기업이 자유롭게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유리한 해외 자본의 활용기회를 확대하며, 수출입대금 및 용역비용의 결제와 외환거래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2) 수출경쟁력의 제고로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킬 터

'80년대 후반 黑字期 이후 최근까지 수년간 정부는 물론이고 업계에서도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것이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서는 범국가적 수출드라이브를 전개하고 있어 이대로 나가다가는 국경없이 전개되는 국제경쟁에서

낙오될 우려마저 있다. 가진것(부존자원)이 다른 나라만 하지 못한 우리의 여건하에서는 결국 수출을 늘리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곤란하며, 이것 또한 경쟁력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올해에는 그동안 느슨해진 수출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강화하고 나아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범국가적 총력수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민간단체·업계와 공동의 '수출활성화 대책회의'와 상공자원부내 각 품목담당과장으로 '품목담당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당면 문제점과 장단기 해결과제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정부와 유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도 수출지원을 위해 다함께 뛰도록 수출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는 수출규모에 상응하는 자주적인 마케팅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자금 200억원을 신규로 조성('93년에는 100억원)하여 수출기업의 고유상표 개발,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판매망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협회 부설로 '국제무역연수원'을 설립하여 마케팅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商社駐在員의 자녀교육문제 해결 등 해외장기근무 여건도 개선하며, '한국무역홍보센터'를 설립하여 국가 이미지와 상품에 대한 대외홍보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셋째로는 수출상품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경쟁력 개선이 시급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해 온 품질·기술경쟁력 평가사업의 대상을 수출주중상품까지 확대하고 추가로 외국바이어 및 소비자들이 우리 수출상품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품목별 품질향상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작년 '수출검사법' 폐지를 대신하여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다소 체계없이 시행되어 온 有望輸出商品 一流化事業을 전면 재검토하여 일류화상품 및 업체지정기준, 절차 등 제도운용요령과 일류화상품의 품질기준을 상반기중에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해당상품 및 업체를 선정,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재로 해외자본의 과다유입에 따른 환율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식투자자한도 확대시기의 연기 등 시급하지 않은 外資의 과다한 유입을 억제하면서 해외 직간접투자의 확대 등 해외로의 자본수출을 촉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지 흑자가 과다할 경우 통화와 환율이 이를 적정히 분담함으로써 환율절상압력을 최대한 중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출지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우선 일부 업종에서 겪고 있는 수출공급능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外貨貸出을 최대한 지원하고 동 자금을 한시적으로 與信限度管理에서 제외시켜 기업이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보험도 인수를 적극화하여 작년의 3조원에서 올해에는 5조 3천억원으로 인수규모를 확대하고 수출보험종목의 통폐합 및 수출신용보증제도의 개선 등 보험체계를 발전시키면서, 延拂輸出資金의 공급규모를 작년의 26억달러에서 올해에는 33억달러로 확대하여 선박·플랜트 등의 수출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출업계의 운전자금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무역금융은 금융자율화를 위한 정책금융 축소방침에 따라 올해에는 운용방식이 다소 변경될 예정이다.

즉,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先貸出하고 그 후 한국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한국은행은 자동적으로 30%

(비계열대기업분) 내지 50%(중소기업분)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에는 매월 사전에 한국은행이 통화사정을 감안하여 매월 금융기관별로 총액대출한도를 정하여 배분하면 금융기관은 배정된 자금규모내에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금융의 공급액이 다소 줄어들 소지도 있으므로 수출업체는 제도전환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V. 맺음말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더구나 엔貨 가치가 추가적으로 절상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좋은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내년에 우루과이라운드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들이 협상결과에 맞도록 자국의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출, 투자 등 해외진출여건이 크게 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무한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를 직시하고 아무리 국제경제환경이 불리하게 전개되더라도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차대전 후 40여년 동안은 모든 국가들이 패배자 없는 경제게임을 하였지만,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어느 한 나라가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다른 경쟁자들은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치열한 경쟁시대가 될 것이라는 레스터 더로우의 경고를 생각해볼 때 지금이야말로 각 경제주체가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